

## 소중한 생명의 파수꾼 '응급구조사'

서대문소방서 응급구조사 김가람

물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A 씨.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신고한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먼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5분 후, A 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제일 먼저 신속하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고현장이나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신속한 처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환자의 병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요.

더 빨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중한 생명의 파수꾼,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은?** 긴박한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환자의 생명유지에 결정적 역할

사고현장에서 각종 응급조치

위급 시 의사 대신 약물 치료 담당하기도

최첨단 장비가 응급구조사의 업무환경에 등장

▶신기술 장비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응급구조사는 사고현장에서 다양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 환자가 발생하면 지혈 후 척추 고정판에 환자를 고정합니다. 척추는 인간의 직립보행과 직결되는 신체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조치가 중요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약물 치료를 하거나, 기도기 삽입 등의 치료도 담당합니다. 가령 심장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 심장마비로 갑자기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환경은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춘 헬기를 활용하거나, 원격 모니터로 의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한편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응급구조 활동을 하지요.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최첨단 장비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갖가지 변수가 있는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사실! 더 많은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잘 활용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신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응급구조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사람을 아끼는 마음 + 팀원에 대한 신뢰 + 경각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

▶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필수!

존각을 다루는 상황이 많다

▶ 신속한 대처 위한 팀원 간 호흡 중요!

늘 경각심 유지해야!

수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에게는 무엇보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지요. 따라서 매 사건 나와 내 가족이 아파할 때처럼 정성을 다해 구조에 임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에게는 팀원들을 신뢰하는 마음도 요구됩니다.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응급구조사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좋은 호흡을 유지해야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김가람 응급구조사는 “현장에 나가면 의외로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많

다”며 “반복적으로 경증을 보이는 환자를 만나다 보면 응급구조사도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사는 증세의 경증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환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응급구조사 자격증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응급구조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나 국군 의무학교와 같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1급 응급구조사 응시 자격 조건

①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③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

\* 위 세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춘 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1급 응급구조사가 되면 2급 응급구조사보다 더 많은 의료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응급구조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에 행복감 느껴야,  
스스로를 소중히 아끼는 자세도 중요

응급구조사 남자에게 더 적합할까? NO!

▶ 누군가를 돕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OK!

응급구조사는 특정한 성별에게만 적합한 직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타인만 소중히 여기면 될까? NO!

▶ 스스로를 아껴야 환자도 아낄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인 응급구조사는 자신은 홀대하고 타인만 소중히 여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아끼려면 먼저 나를 아끼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요. 각종 사고현장을 목도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경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응급구조사. 이런 업무환경에서는 자신의 스트레스부터 잘 관리해야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더욱 잘 처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위급한 상황.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단 몇 분입니다. 1초라도 더 빠르게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1초라도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뛰고 또 뛰는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사람을 아끼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길 바랍니다.